



[산업]
삼성·LG전자
고화질 TV 大戰
AI로 전선 확대
05



Economy

코스피	2402.16 (0.00)	코스닥	860.23 (0.00)
금리 (미국 3년)	2.29 (+0.02)	환율 (원/달러)	1080.30 (-2.50) (2일)

시장경제 뒤흔드는 '노조공화국'

강성노조의 그늘

(1) (주)한국호의 위기

한국GM, 금호타이어 등
부실기업 정상화 잇따라
외국기업 철수 선언 잇따라

“노동조합이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자신들만의 이익과 일자리 안정에 집착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재계 관계자)

대한민국 경제가 강성노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급성장한 노동권력이 한국 경제에 끼치고 있는 영향이 웬만한 권력단체 이상이 됐다. 강성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파업으로 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들 강성노조의 반발로 타이

밍을 놓쳐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지엠의 경영 패착과 강성노조 때문에 군산 공장 폐쇄라는 초강수를 꺼내들기도 했다.

◆ 강성 노조에 시달리는 '한국호'

4일 재계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제조산업이 강성노조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주축 기업들의 시름이 늘어나고 있는 것.

물론 기업이 투명한 기업경영을 이어갈 수 있으려면 노동조합(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 올바른 노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측뿐만 아니라 노조 역시 회사의 현재 재무상태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권오준 회장, 패럴림픽 성화봉송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성화봉송 서울 구간 둘째 날인 4일 오전 성화주자로 나선 권오준 포스코 회장(오른쪽)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서 성화봉송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트로 창간 16년만에 대변신
유·무가지 동시 발행

메트로신문이 창간 16년 만에 대변신합니다. 오늘부터 전국 언론사중 유일하게 유·무료신문 동시발간 체제에 돌입합니다. 24페이지로 발행되는 유료신문 <메트로경제>는 매일아침 기업 사무실까지 직접 배달해드립니다. 베를리니판으로 계속 발행되는 무료신문 <메트로>는 지금처럼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매일아침 시민들에게 무료 배포합니다. <메트로경제>는 기업독자를 위한 심층보도를 통해 자유경쟁시장의 가치를 더 높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콘텐츠로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응원하며 대한민국을 더 융성하게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무료신문 <메트로>는 주 독자층인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알찬 정보로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 1. 유·무료신문 동시 발행**
기업독자를 위한 유료신문이 평일 24면, 주 120면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지면에는 깊이있는 분석과 해설기사가 가득 실립니다.
 - 2. 신문 서체 확대**
메트로신문 본문 서체가 달라집니다. 보기 쉽고 읽기 편한 신문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본문 글자 크기를 9.5포인트에서 10.2포인트로 키웠습니다. 글자의 두께도 굵어졌습니다. 낱글자간의 간격을 넓혀 더 또렷해 보이도록 했습니다.
 - 3. 호남지사 신설**
호남지사를 신설했습니다. 지역의 신망이 두터우며 경륜이 풍부한 지사장과 주재기자들이 광주·전남 지역의 뉴스를 신속 정확하게 보도합니다.
 - 4. 지방자치-공기업 지면 강화**
호남지역외 다른 지방에도 네트워크를 구축, 전국 뉴스망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방혁신도시 내 공기업 뉴스도 보강할 방침입니다.
 - 5. 전면 컬러 인쇄**
유·무료신문 동시발간을 계기로 오늘부터 전면 컬러인쇄에 돌입합니다. 보기 쉽고 읽기 편하며 컬러풀한 사진과 색상효과가 뛰어난 디자인으로 신문 읽는 재미를 더할 것입니다.
- 구독신청 및 배달문의: (02)721-9826, 9861
 - 구독료: 한부 800원, 월 1만5000원
 - 특별 구독캠페인:
3월 말까지 구독신청 시 추천 통해 사은품 증정

“3選 도전 굳혀... 중앙-지방 협치시대 열 것”

박원순 서울시장 본지 인터뷰

“市 과제 59% 文 공약과 일치
국정 성공 뒷받침 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특별시

6.13 서울시장 선거를 약 100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실상 3선 출마를 기정 사실화했다.

박 시장은 지난 2일 메트로신문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지난 6년간 서울의 혁신을 연속성있게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면

서 “서울시의 ‘내 삶을 바꾸는 혁명’은 새 정부의 기치인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와 맞물려 있고, 서울의 혁신 동력을 일관되게 이끌어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겠다. 공식적인 자리(출마 선언)는 따로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L7면>

박 시장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 연속성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정감 있는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한 것으로, 현 정부에 대한 서울시민의 평가가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과제 59%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일치한다. 박 시장은 “도시재생,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서울시가 테스트베드가 되어 일궈낸 혁신의 열매는 새로운 씨앗을 맺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가 검증하고 입증한 서울형 혁신정책을 매개로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중앙-지방 협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hys@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입장권 검색

올림픽의 감동을 다시한번!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3. 9 개회식 19:00~21:50 / 3. 18 폐회식 19:00~21:20

성화채화행사 (정월대보름)
2018. 3. 2 (금) | 고창, 안양, 제주, 청도, 논산

서울 합화행사
2018. 3. 3. (토) | 잠실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지역축하행사
2018. 3. 4. (일) | 서울 청계광장
2018. 3. 5. (월) | 춘천 춘천역
2018. 3. 6. (화) | 원주 원주시청
2018. 3. 7. (수) | 장선 아리랑촌놀이마당
2018. 3. 8. (목) | 강릉 임영대충격광장

평창패럴림픽 앱 | 2018 평창 공식앱 | GO 평창 | 투어강원 | 지니톡
실시간 대회 정보 제공 (국어, 영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 교통 정보 제공 | 강원도 숙박, 관광, 음식, 교통 정보 제공 | 29개 언어 번역기

개최도시 | 평창, 정선, 강릉
2018년 3월 그순간 당신은 누구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입장권 tickets.pyeongchang2018.com/paralympic